



이슈1 ▶ 그린 젠트리피케이션을 멈춰라! 도시의 권리는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슈2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쇄산업 대책 마련 요청

현장 스케치 ▶ 2023 경영자 세미나 개최

K·print 2023

2023
8. 23 -
8. 26

KINTEX
제2전시장



www.kprint.kr
사전등록 바로가기



Since 1978

KIPES
26th Korea International Printing
Machinery and Equipment Show
제26회 국제인쇄기자재전시회

Klabel
Korea Label Show
한국레이블전시회

Kpack
Korea Packaging Show
한국패키징전시회

Kdigital print
Korea Digital Print & Solution Show
한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

Ktextile
Korea Textile Show
한국텍스타일전시회

Ksign&ad
Korea Sign & AD Show
한국사인·광고전시회

주최
한국이앤엑스 / 대한인쇄문화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 경기관광공사 / 한국인쇄진흥재단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 대한인쇄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 한국인쇄학회

미디어후원
The Printing Industry News, 인쇄세계, PRINTINGTRENDS, 프리팅코리아, THE 사인문화

참가신청 및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print@kprint.kr



04



08



12



20

인쇄저널 월간(비매품) 7월호 통권 428

발행일	2023년 7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겸 편집인	김윤중
편집위원장	서동숙
편집위원	강혜성, 류윤현, 채연화
실무	기획홍보팀(오혜경, 남영복) 02-333-8631(내선 239)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쌍림동 146-1)
디자인 편집	카오스넷근아 / 02-2278-1577
인쇄	(주)투데이아트 / 02-2265-6119



※ 인쇄저널의 인쇄 및 용지 제공은
(주)투데이아트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4	이슈1	●그린 젠트리피케이션을 멈춰라! 도시의 권리는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08	이슈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쇄산업 대책 마련 요청
12	현장 스케치	●2023 경영자 세미나 개최
16	포커스	●세계 최고·최대 인쇄 포장 전시회, 드루파 2024
17	제품소개	●레보리아 프레스 3종 출시 ●블랙매직(Blackmagic) 인쇄교정 솔루션
18	Printing Journal News	●4부회 간사장단 회의 개최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청계천 을지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기부행렬 잇따라 ●엡손, 밀알복지재단과 MOU 체결 ●상동화 G7 마스터 인증 획득
22	NOTICE	●조합 '커뮤니티 공간' 무료 이용 안내 ●조합원 대상 어도비 프로모션 ●조합원사 변동

K·print에서 골드바를 잡아라!

K-PRINT 전시장에서 행운을 잡으세요!
골드바,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들을 현장에서 추첨하여 드립니다.

이벤트기간 2023. 8. 23(수) ~ 26(토) 이벤트장소 K-PRINT 전시장내

8명	100명	500명	150명	100명
순금 1돈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1만원권	카페테리아 음료쿠폰	K-PRINT 머그잔

서울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울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울의 주인은 시장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이 지역의 가치를 수십 년간 만들어간 시민들과 주민들이다. 고위 정치인 한두 명의 개인적 의견에 의하여 국가 제조업과 공구 유통의 핵심인 청계천과 을지로 지역이 250m 초고층 빌딩으로 바뀐다면 그만큼 허무한 일도 없을 것이다. 청계천·을지로의 금속 제조 공장, 인쇄 단지, 공구 및 부자재 유통업 단지는 낙후된 슬럼이 아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주요 덕목인 개인 맞춤형 생산(Personalized Production), 유연 생산(Flexible Manufacturing),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자연 발생적으로 수행해 온 혁신의 공간이다. 을지로의 건물은 수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건물이 낡았으니 건물과 함께 사람도, 일자리도

없어졌다는 것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서울시가 요즘 주장하는 공원은 서울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도심의 양질의 산업생태계와 일자리를 없애며 만드는 녹지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또 한편으로 남산 고도제한을 풀어 개발하겠다 하면서, 한쪽은 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모순덩어리 자체이다.

중구는 2019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제조업체가 가장 많은 곳으로 9,947개의 제조업체가 있으며 종사자는 30,475명이다(서울시 중구, 2019). 세계 어디에도 30년 이상 숙련 기술자 및 유통상인이 3만 명이 몰려 있는 장소는 없다. 이 숙련 노동자들의 기술을 전수하고, 유통망을 키워 낼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도시 계획에는 이 사람들과 기술을 없애고 부동산만 있으니 개탄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그린 젠트리피케이션을 멈춰라! 도시의 권리는 도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녹색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에 녹지를 많이 만드는 것은 도시 주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을 밀어내고 만든 도시 녹지는 오히려 불평등을 증가시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중구 인쇄골목. 건물은 비록 낡았지만 인쇄의 모든 공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과정은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다.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가상도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인쇄사 내부 모습. 까다롭고 다양한 일들을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을지로의 인쇄기술자들이 없다면 디자이너들도 상상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을지로 3가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직접 종이를 만져보고, 그리고, 샘플을 눈으로 확인하고, 밤새 감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을지로에서만 가능하다.

서는 수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으려 해도 실패하는 도심 산업을 서울시가 나서서 파괴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필자는 도시공학을 전공했으며 출판사를 2009년부터 운영하여 독립 출판물과 예술 및 도시 서적을 발간했다. 2015년부터는 사무실을 을지로 3가로 옮겨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을지로 3가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건물은 비록 낡았으나 인쇄사가 가깝고 각종 재료들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종이를 만져보고, 그리고, 샘플을 눈으로 확인하고, 밤새 감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을지로에서만 가능하다. 을지로에서 엮어 한 장이라도 출력해 본 사람이라면 이 지역의 생산성과 효율성, 이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실함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CMYK 판이 어떻게 분리되어있고, 어떤 순서로 인쇄가 되고, 어떤 식으로 후가공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과정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인쇄 기술자에 따라 인쇄의 톤이 달라지는 것도 놀라운 경험이었다. 즉 단순히 기계만 좋다고 해서 좋은 인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다뤄본 숙련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을지로가 특별하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어떻게 좋은 출판물을 만들지 고민하는 것 외에 요즘은 이 지역 전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계천 을지로는 하나의 커다란 생산 공장이자, 학교이자, 실험실이다. 이러한 혁신과 생산의 공간을 단순히 주거공간인 아파트, 호텔,

사무실 등지로 바꾼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문화 역사적으로도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계획이다.

2015년경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전면 철거를 하는 재개발 사업은 없으리라 예상했으나 2018년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3-14,5 구역 즉 철공소 및 공구 유통 골목의 핵심적 구역인 입정등을 시작으로 아파트 재개발이 본격화되었다. 세운상가 건물만 도시재생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자들, 예술가들, 디자이너들은 모두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12월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시민단체인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를 결성하여 우리가 처음 한 일 중 하나는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었다.

지역의 가치: 청계천은 우리나라 R&D의 중심지

서울시가 을지로 재개발을 주장하는 근거는 수십 년간 같다. 이 지역의 기술이 을지로의 건물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및 서울시가 입정등 및 수표동의 제조업, 유통업체들 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품들과 기계는 대부분 공학 대학 연구실의 실험기기, 대기업의 기계 제작, 대학 병원의 수술 기계 등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신산업과 연결되어 있었다. 철공소 및 유통업에서 빠지지 않는 주요 고객들은 놀랍게도 카이스트(KAIST), 키스트(KIST),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의 대학 연구실 및 각종 병원이었다. 또한, 인테리어업,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장소였다. 수많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이 장소에서 작품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청계천 기술자들이 제작뿐만 아니라 수리에도 능하다는 점이었다. 즉 중구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인쇄와 의류업에서 사용하는 기계가 고장 나면 청계천에 가서 부품을 직접 살 수도 있고, 공장



중구 인쇄업 생존권 수호를 위한 대토론회 모습

에서 부품을 쉽게 깎을 수 있었다. 또한, 의료 기기나, 각종 기계 심지어 트럼펫이나 기타와 같은 악기의 부품도 깎아 수리를 해주었다.

인쇄업의 가치

또 하나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인쇄 제조업 규모가 작아 영세하다고 하는데(중구, 2019), 영세한 것이 아니라 고용 유발 효과가 높으며, 부가가치 생산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국가도 인지하고 있다. 2010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은 제조업 중 '식품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취업 및 고용유발 효과(10억 원당 18.8명, 11.2명)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은행, 2014; 권규상, 2018). 청계천 을지로 지역은 건물 자체가 큰 것이 별로 없다. 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현황

물이 작아 공장이 작은 경우도 있고, 여러 여건상 많은 기계를 들여놓지 못하거나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단순히 "영세하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4차 산업업의 특징은 개인화, 유연화, 지역화이다.

을지로 공장이나 인쇄사는 규모가 작은 만큼 다양한 까다로운 일들을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의 서울시 세운지구 개발 대응 토론회에서 신인아 그래픽 디자이너는 을지로 지역의 가치를 역설하며 얼마 전 A2 사이즈의 책을 천 양장을 해서 두 권 납품했다고 한다. 세상 어디에서 A2 사이즈 책을 두 권만 양장할 수 있겠는가? 다른 나라에서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을지로의 기술자들처럼 양



세운3구역 제조업 상인들을 위해 지어진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사진 박은선)



세운 3구역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주하여 프레스 작업 중인 중앙기업 황민석 대표 (사진 박은선)

침묵은 금이 아니라 개발 독재를 묵인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

질의 책을 빠르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디자이너들도 손님들도 상상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계획은 무엇이 문제인가? 사라진 상인 보호 대책

첫째, 재개발은 법적으로 공공사업으로 분류되며 신규 건물과 주거가 공급되지만, 공공성이 희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재개발로 시행사와 건설사에 돌아가는 이익에 반하여 과연 그 장소에 살고 일하던 사람들의 이익은 얼마나 보장될까? 세운지구 재개발 지역의 95%~98% 달하는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은 2021년 기준 92.4%를 넘었으나 실질적 주택 소유주는 2005년과 2021년 사이 44.6%에서 43.5%로 16년간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다(통계청, 2021).

또한, 그동안 국가와 서울시는 재개발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에서 영위하던 제조, 유통, 요식업 등 다양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여파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세입자들에게 대체영업장이나 영구임대 사업장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세운 3 구역의 제조업의 경우 상인들, 중구청, 서울시, LH,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와 노력으로 임대상가가 지어져 산림동 지식산업센터가 7월 20일 개관 예정이다. 또한, 수표 재개발 지역도 유통 상가 200호가 지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재개발로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기존 상공인을 위한 반영구 임대 영업 및 공장 시설을 2020년 서울시가 5-1,3 구역 그리고 인

쇄 지역에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구청에 짓기로 한 메이커스 파크를 취소하고, 산림동 및 입정동 상인들의 임대 영업장도 축소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취소하는 것은 매우 미성숙한 행정이다. 원안대로 진행해야 마땅하다.

둘째, 개발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재개발 사업은 수리나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과 마을 전체를 모두 철거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거권 및 일할 권리 모두를 박탈하지만,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지주들에게도 개발 소식을 제대로 접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재개발 일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셋째, 직장·주거 근접 이론의 허상이다. 서울시의 세운지구 재개발 논리는 주택공급 그리고 직주근접이다. 그런데 을지로에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집을 짓는 것은 과연 상식적인가? 을지로에 집을 지으면 을지로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주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현재 세운 힐스테이트 14평의 분양가는 9억 원을 넘었다. 과연 서울시가 주장하는 대로 을지로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실거주 입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서울은 이미 훌륭한 직주 근접의 도시로 도심 내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면 대중교통으로 횡단이 가능하다. 직주근접이론은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미국과 유럽에서 만든 이론으로 서울에서 직주근접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지속가능성은 녹색 공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가능성은 환경, 사회적 경제, 평등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이룩할 수 있다.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은 개발 규제를 풀고 도심의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공원을 짓는 일은 서울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 개발이 단지 인쇄업을 하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형태의 거대한 재개발은 소유주들과 세입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이용하던 시민들에게도 모두 영향을 준다. 특히 청계천, 을지로 지역과 같이 상업과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전면 재개발을 진행한 결과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사용자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큰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즉 재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보상 문제 수준으로 축소해서 보아서는 안 되며 도시 공간과 시간을 영위하는 도시 공동체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침묵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계획을 수정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된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개발 독재를 묵인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지역 특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야 한다.



박은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연구교수, 도시공학 박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쇄산업 대책 마련 요청

서울시·중구청·서울인쇄조합 구성, 인쇄산업발전 민관협의회 개최

- 오는 8월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 결과 공람과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될 예정
- 인쇄업체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쇄업체만을 위한 단독 설명회 개최는 어려움
- 스마트앵커를 대체할 목적된 시설들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
-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할 터

민관 협력을 위한 창구 필요성 제안

서울시와 중구청, 그리고 서울인쇄조합의 이해관계 담당자들로 구성된 인쇄산업발전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제1차 회의가 지난 6월 23일(금) 오후 2시~4시까지 2시간가량 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관협의회 구성은 본 조합 김윤중 이사장이 지난 5월 25일(목) 서울시청 본관 6층 부시장실에서 가진 김의승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세운지구 및 오장동 등 인쇄산업 집적지의 도심 재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관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창구의 필요성을 제안한 결과 성사되었다.

이날 회의에 서울시에서는 제조산업지원팀장, 녹지도심사업팀장, 제조산업앵커팀장이, 중구청에서는 도심산업팀장,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회의 주제는 지난 5월 30일 본 조합이 제기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쇄산업 관련 대책 마련과 관련해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답변을 받은 민원 내용에 대해 추가로 세부적인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윤중 이사장은 회의를 마치고 “장시간 인쇄업계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인쇄업계를 일반적인 업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쇄문화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자긍심으로 협조해주시고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민원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한 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서울인쇄조합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

(접수번호: 20230530900324)

- **민원 질문: 세운지구 재정비사업 관련 인쇄산업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요청**
- **민원 답변:** 재개발 추진 시 이주 보상 등 상가세입자 대책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수립 및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일부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임대상가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추가로 대체영업장 확보, 우선분양권 및 임차권 부여 등 기존 도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상가세입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및 진흥계획, 스마트앵커 건립 시행 요청**
- 현재 서울시에서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인쇄 지구에 대한 재검토 예정임.
-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조속히 건립 추진**
-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세운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용역’(23.8.예정) 결과에 따라 중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스마트앵커 추진 여부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임.
- **서울시 인쇄문화산업진흥 조례 제정**
- 조례 제정은 의류봉제, 인쇄, 주얼리 등 업종에 대한 개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보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됨.
- **인쇄박물관 건립**
- 공립 박물관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서울시, 중구청, 서울인쇄조합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 회의 모습



조합에 전사된 직자와 무궁정광대리니경 영인본을 소개하는 모습

▽ **추가 질문:** 공공임대상사 건립 주체(서울시 or 시행사)가 누구인지?

▲ **추가 답변:** 사업건립 주체는 대부분 사업시행사가 되며, 사업시행사가 기부채납을 한 부지에 공사, 신축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 진행함. 일부 LH나 SH에서 공급하는 사례도 있는데 일부 부지만 받아 놓은 곳에서는 공공에서 건립해서 분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마다 차이는 있음. 현재 공공임대상사는 세운스퀘어라는 공공임대상가와 5-2구역의 LH 상공상가, 5-1, 3구역 등 3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음. 세운스퀘어는 유통업(4구역 대책으로) 대상으로 200호 정도 공급 계획임. 5-2구역은 3구역 청계천변 아파트상가 개발할 때 당시 세입자 제조업자 중심으로 애초 100호 예정이었으나 입주자 과정에서 규모가 축소되어 39호 정도가 분양 신청받았고 최근 정비사업으로 19호가 신규로 유입되어 58호가 입주 완료됨. 5-1, 3구역은 사업인가신청을 받아 촉진계획 고시 후 시행 예정으로 100호 계획하고 있음.

▽ **추가 질문:** 공공임대상가 건물 형태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는지?

▲ **추가 답변:** 건물 형태는 쇼핑몰과 같은 일반형태와 산업적 특성이 반영된 형태 둘 다 공급되고 있음. 참고로 6-3-1, 2 구역에 분양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을지트윈타워는 일반상가 형태이기는 하지만 지하 2층에 인쇄도심산업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허용인센티브를 포함시켜 도심산업진흥공간을 마련했고 일부 인쇄업체가 들어가도록 했음.

▽ **추가 질문:** 건립 가능한 임대상가 호수를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는지?

▲ **추가 답변:** 현재 공급된 수량이 세운스퀘어 등 400호 이상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도 일부 부지를 받거나 건물까지 기부채납으로 받아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음. 다른 구역의 경우 현재로서는 수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하겠다는 큰 방향성만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일어날 때마다 수요를

고려해서 수량의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음.

▽ **추가 질문:** 대체영업장, 우선분양권 등 세입자 대책 공표 시기는?

▲ **추가 답변:** 대체영업장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최대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우선분양권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단계로 7월에서 8월 사이에 공람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임.

▽ **추가 질문:** 진흥지구 및 스마트앵커에 대해 중구청에서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

▲ **추가 답변:** 새로운 특정진흥지구 지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향후 전체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서울시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임. 스마트앵커는 인쇄산업의 지원시설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100억 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입주 업체는 50여 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임. 따라서 스마트앵커 건립보다는 R&D 시설 등 목적된 시설들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시설로서의 역할을 대신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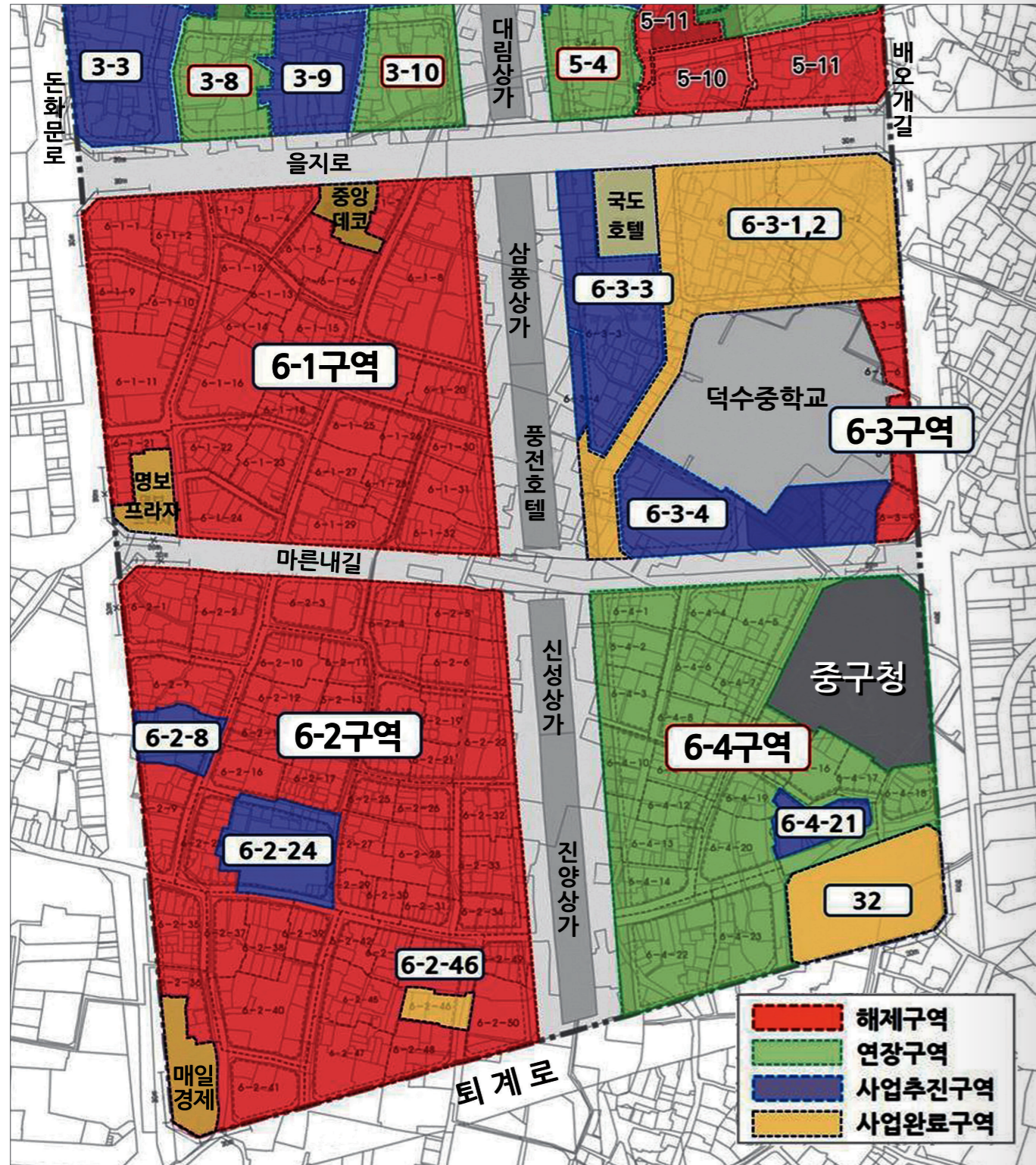
□ **추가요청:** 대전, 광주, 경기도 등 많은 지방 도시에서 인쇄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중구에서 2010년 지정하고 2017년 고시한 인쇄진흥 계획안에 스마트앵커 건립이 담겨있음. 아울러 인쇄는 장치산업이자 협업산업으로 집적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길 원하며 4구역이나 오장동 쪽으로 이주를 시켜주시는 것이 합당함.

▽ **추가 질문:** 스마트앵커 건립은 국비는 물론 시비까지 투입되어 진행했던 사업으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부족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라 재정문제 때문이라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

▲ **추가 답변:** 처음에는 SMP(서울메이커스파크)를 통해 200개사 정

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스마트앵커를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음. 현재로서도 어떻게든 스마트앵커를 대신해 지원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스마트앵커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점시설을 마련해서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로 생각됨. 여러 가지 제조산업이 중구에 많이 있는데 봉제의 경우도 별도의 앵커시설이 없는 상황임. 구 입장에서도 인쇄산업이 중요한 산업임을 감안해 다른 거점시설을 통해 입주가 더 많이 되는 시설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운재정비구역. 6-1, 2, 4 구역은 90%가 인쇄업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업체와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 중에 있음.

▽ 추가 질문 : 세운지구 정비계획 용역 결과에 대한 인쇄업계만을 위한 설명회 개최 여부

▲ 추가 답변 : 세운특정개발 계획은 인쇄업체만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쇄업계만을 위한 단독 설명회 개최는 어려운 상황임.

▽ 추가 질문 : 인쇄업계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가이드라인 준비단계에서부터 인쇄업체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임

▲ 추가 답변 : 지역 내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을 5년 안에 접겠다, 10년 안에 접겠다, 보상만 받고 나가겠다 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음. 대체영업장은 배려의 정책으로 무조건 이 지역에서 해야 한다는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임. 통상적으로 개발을 할 때 20% 정도 재정착을 한다는 결과조사가 있는데 물론 그 20%가 원하는 사람만 남았다고는 볼 수는 없음. 원치 않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개발양상으로 봤을 때 20% 정도는 최소한 처지가 배려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임대상가계획을 하는 것임. 그리고 임대상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인쇄업종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검토되어야겠지만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쇄단지를 만드는 계획은 아니므로 인쇄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분까지는 담지는 못함. 이는 향후에 공공임대상가가 확정되었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촉진사항에 포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 추가 질문 : 6-1, 2, 4 구역은 90%가 인쇄업체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인쇄업체와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함.

▲ 추가 답변 : 용역 결과에 재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며 당연히 충분히 이해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며 또 조합과 소통하고 공유하겠음.

▽ 추가 질문 : 8월 용역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 추가 답변 : 용역이 공람이 되면 공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고시되면 이 지역의 개발은 고시에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상황임.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대체임시영업장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세입자들을 고려해서 임차권을 부여하는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을지 등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담기게 됨.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라면 혼자서는 못하고 함께 해야 하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고 동의를 받게 되면 가이드라인 전제하에 개발계획안이 나오고 이를 바

탕으로 건축 심의를 받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들을 거친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토지 소유 간의 관리처분(예전 건축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평가, 신규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권리를 분배할지가 정해지고 그 이후에는 분양신청(일반, 수요)을 한 후에 착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추가 질문 : 시행사가 선정되는 시기가 궁금함.

▲ 추가 답변 : 시행방식에 따른 다르기는 한데 고시 끝나고 정비계획을 이관할 때 선정됨.

▽ 추가 질문 : 현재 중구청에서 오장동 일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 추가 답변 : 지금 세운과 비슷한 상황으로 오장동은 물론 촉진지구나 일반정비지역이나 차이는 있겠지만 공공에서 하는 구역지정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제시한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공공에서 개발할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담기는 어려울 수 있음.

▽ 추가 질문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장동 일대가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구역별로 나눈다면 예를 다섯 개 중 한 개 구역 정도는 인쇄산업을 배려한 도시계획 시설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추가 답변 :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행력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실행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아직은 계획 초기 단계로 고민할 부분이 많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역의 범위나 디바이스(도로, 공원)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개발을 시행할 때에는 현황조사를 통해서 계획이 수반되고 이주대책이 좀 더 세분될 수 있음.

▽ 추가 질문 : 중구 일대는 5,500개 인쇄업체가 있는 만큼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정비계획안에 처음부터 담겨야 할 것임. 도심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일할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기 때문임. 실태조사가 된다면 나중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용역단계부터 실태조사를 할 때 그 구역 안에 있는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정책적인 고려가 담긴 설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추가 답변 : 현황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음.



2023 경영자 세미나 개최

초청 강연, 분임토의, 공연 등 총 3부로 진행해 하나 되는 조합, 함께하는 세미나 구성

우리 조합은 지난 6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 쉰비치 리조트에서 2023년 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업계 현안 공유와 정보교류

올해로 창립 61주년을 맞은 우리 조합의 이번 세미나는 유관단체장 및 조합원사 대표 2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명사 강연, 문화유적지 관람 등을 통해 기업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계 현안 공유와 정보 교류, 화합의 차원에서 진행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올해 2월 김윤중 이사장 선출 후 처음 개최하는

경영자 세미나로 취임 후 △공공기관 인쇄물 기준요금제 적용 △인쇄물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개선 제안과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등 지난 115일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활동 및 조합 신규 공동사업, 조합 제안사항에 대한 분임토의도 함께 이뤄졌다.

세운 재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해결 나설 터

김윤중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동해와 설악의 청정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 강원도 양양에서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조합원님

들과 면면히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며 지난 2월 취임하자마자 우리 인쇄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각 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숨 가쁘게 달려온 115일간의 여정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대한민국 최대의 인쇄산업 클러스터를 파괴하는 세운지구 재정비사업에 반대하는 대토론회에 조합원 200여 분이 참석, 충무홀을 꽉 채워주셨으며 아울러 2,335명의 인쇄인 서명 건의서를 서울시에 전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함께 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의지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힘이 들수록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화합한다면 희망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힘을 내어 열심히 될 것을 약속했다.

제1부_초청 강연에서 강렬한 상상의 날개 심어줘

이번 경영자 세미나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 말씀 등 개회에 이어 제1부 명사 초청 강연, 제2부 분임토의, 제3부 소통과 화합 한마당 등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제1부 ‘명사 초청 강연’은 남이섬에 나미나라공화국을 세워 국제관광지로 바꾼 역발상의 경영인으로 지금은 제주 황무지를 가꿔 탐나라 공화국의 총통인 강우현 멀티아티스트가 ‘내 맘대로 하다 보니 네 맘에도 든다더라’를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강우현 총통은 더하고, 빼고, 섞고, 늘여 쓰는 강연으로 강렬한 상상의 날개를 뇌리에 심어주었으며 도가의 창시자라 불리는 노자(老子)의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一生二生三三三生萬物)’이라는 마무리 문구를 인쇄인들에게 남겨 현실에서 부딪히는 막연한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줬다.

제2부_분임토의 통해 조합에 제안사항 제출

제2부 분임토의에서는 진용득 서울인쇄조합 상무이사가 달라진 조합의 소개와 함께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조합에 바라는 사항을 분임토의를 통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결과를 분임장이 대표로 발표했다.

제1분임에서는 유명식(해인기획 대표) 분임장이 “서울인쇄문화산업센터를 건립해 스위스 바젤시에 있는 페이퍼 뮤지엄처럼 인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었으면 하고 중구 도심재생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골목길과 현대식 건물을 공존시켜 관광문화지구로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제2분임에서는 김영식(태성문화사 대표) 분임장이 “조합 차원에서 텐텐(10/10)운동(인쇄비 1만원, 판비 1만원)을 주도적으로 펼쳐 소규모 인쇄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했다.

제3분임에서는 김응영(삼원인쇄사 대표) 분임장이 “중구 인쇄인 생



제1분임 회의 / 유명식 분임장(해인기획 대표)



제2분임 회의 / 김영식 분임장(태성문화사 대표)



제3분임 회의 / 김응영 분임장(삼원인쇄사 대표)



제4분임 회의 / 이홍일 분임장(주영림인쇄 대표이사)



제5분임 회의 / 장세훈 분임장(송죽문화사 대표)

존권 수호를 위해서는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하며 조합의 결집과 힘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인쇄업 등록 시 조합 의무가입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제4분임에서는 이홍일(주영림인쇄 대표이사) 분임장이 장애인단체로 위장한 기업의 제재방안, 중구 인쇄타운 조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폭을 중장년층까지 확대 지원,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소통 채널(온라인) 마련 등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향상과 지속 가능한 내용을 제안했다.

제5분임 장세훈 (송죽문화사 대표) 분임장은 “조합에서 장비업체와 협업을 통해 최신 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의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제6분임에서는 윤용선(씨티컴 대표) 분임장이 “기업승계 지원사업을 정부기관에서만 지원받지 말고 하나의 조합 사업으로 진행하여 신규 인력이 없어 1세대가 힘들게 이끄는 우리 인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제7분임에서는 김기호(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분임장이 “장애인기업 의무구매비율을 인쇄물로 채우는 관행,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 명의 차용, 일방적인 원자재가격 인상 규제 및 생산단가 공개, 그



제6분임 회의 / 윤용선 분임장(씨티컴 대표)



리고 납품단가와 연동시키는 법제화 시행”을 요청했다. 한편, 제2부 분임토의는 김윤중 이사장의 인쇄인 생존권 수호 결의문 선창에 이어 조합원들이 따라 하며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제3부 초청 공연 등 화합의 장 마련

제3부 초청 공연 & 한마음 이벤트에서는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의 후원으로 다재다능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김선근 아나운서의 사회와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영기, 강예슬 가수를 초청해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다음날인 17일(토) 오전에는 월정사와 자연과 인간이 호흡하는 황성호숫길을 거닐며 이번 2023년도 서울인쇄조합의 경영자 세미나의 대미를 장식했다.

만족도 조사, 기존대로 1박 2일이 적정해

한편,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이번 세미나는 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었고 불만족스러운 점은 대부분 없다고 했다. 다만 가장 불만족스러운 프로그램으로는 황성 호숫길과 월정사 관람을, 가장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은 책과 인쇄박물관과 초청공연이었고 답했다. 세미나 참가비는 현행 7만원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기존 5만원이 이어졌다. 세미나 개선(이사장 임기 첫해와 마지막 해만 1박 2일, 중간 2년은 당일) 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매년 1박 2일이 절반을 넘었다.

이밖에 의견으로는 세미나 진행과 관련해 이동 거리를 안배하여 춘천에서 중식 후 이동한 것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다만 하조대 등 양양의 관광지가 빠져 있어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리무진 버스 차량 이동은 만족스러웠으며 다만 숙소가 5인실이라 향후 2인실 배정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시기 또한 6월은 한여름 날씨와 흡사해 일정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세미나 강연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며 이후 가진 분임토의 시도는 좋았으나 짧은 시간에 의견을 도출해내는 것이 무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 조합은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합원사의 의견을 경영자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인쇄인 서명 건의서 제출에 아낌없이 지원을 한 4부간사회 및 조합원사에 상품권을 전달했다. (좌측부터 신병태 감사, 방윤덕 전산정보부회 간사장, 이사장, 김상희 ㈜자성토탈 대표이사, 모종근 상업인쇄부회 간사장, 이태영 일반인쇄부회 간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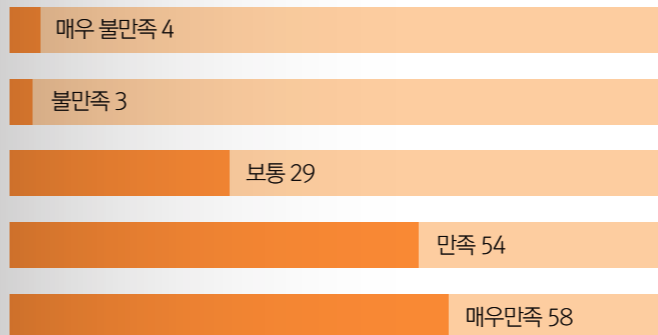


제7분임 회의 / 김기호 분임장(한가람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세미나 만족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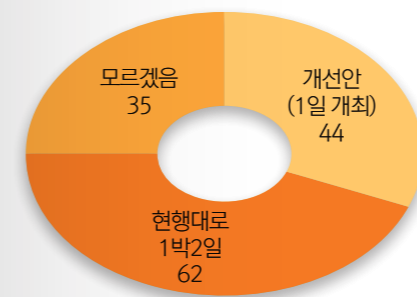
● 이번 세미나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합계 148)



● 세미나 참가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합계 148)



● 적당한 행사 일정은? (합계 141)



2023년 경영자 세미나 일정

1일차 6/16(금)

07:40 ~ 11:20 서울 출발/책과인쇄박물관/김유정문학관



11:30 ~ 12:30 중식(닭갈비정식)

12:30 ~ 14:30 양양 쓸비치 리조트 이동



14:30 ~ 14:50 숙소 체크인

15:00 ~ 19:00 세미나



19:00 ~ 21:30 만찬 및 초청 공연 & 한마음 이벤트



2일차 6/17(토)

07:30 ~ 09:30 조식/월정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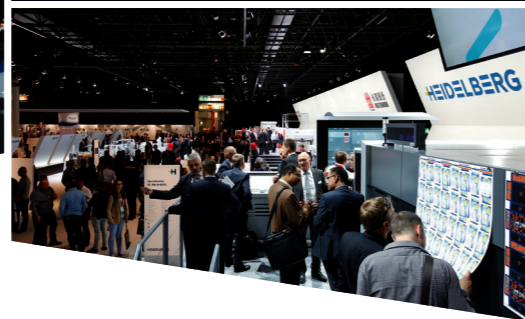
09:30 ~ 12:30 월정사/중식(산채정식)

14:00 ~ 18:00 황성 호숫길/서울 도착 및 해산



세계 최고·최대 인쇄 포장 전시회, 드루파 2024

2024년 5월 28일 ~ 6월 7일까지 10일간 개최



- 8년을 기다려온 인쇄산업의 올림픽
- 인쇄 및 포장 업계 최신 혁신과 트렌드가 한 자리에

드루파 2024 카운트다운 시작

전 세계 인쇄 및 포장산업을 선도하는 '드루파 2024' 전시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5월 28일(화)부터 6월 7일(금)까지 10일간 개최하는 드루파는 포장 및 인쇄 산업계 전문가들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필수 참석 코스로, 4년마다 개최된다. 다만, 2020년도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8년 만에 찾아오는 인쇄계 빅 이벤트에 전 세계 인쇄 포장 업계가 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6년도 드루파는 1,828개 참가사, 전시장 면적 158,237 sqm(축구장 22개), 방문객 260,165명의 압도적 기록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끝났다. 드루파 전시회에는 엡손, 캐논, 코닥, 제록스, hp, 후지필름, 하이델베르크, 호라이즌, 란다, BOBST 등 세계적 선도기업이 대거 참여해 왔다. 국내의 경우 매회 약 40개사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수출망 확장을 실현했다.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

이러한 성공적 결과는 드루파만의 특장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방문객 중 75%가 최종결정권자인 임원급으로, 실질적 수주 및 투자 상담이 가능했다. 무엇보다 드루파 전시회의 최대 장점은 국제성에 있

다. 전시사의 71%가 독일 외 국가에서 참여하며, 방문객 역시 26만명 중 75%가 해외 국가 출신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글로벌 수출 다변화 및 해외시장 신규진출을 희망하는 참가사라면 꼭 참석해야 할 전시회이다.

첨단산업의 핵심 분야가 대거 참여

드루파 전시회는 프리프레스/프린트, 프리미디어/멀티채널, 포스트프레스/변환/포장, 인쇄/프린팅, 패키징, 프린트4.0, 피니싱4.0, 산업/특수인쇄, 3D프린팅, 플랫폼 경제 분야 재료, 부재료, 완제품, 장비, 서비스, 인프라 등 인쇄산업 전반을 다룬다. 인쇄산업은 IT, 자동화 기술과 접목하며 다수의 산업과 융복합을 이루고 있어, 활용 저변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분야다. 이에 따라 식품, 화장품, 의료, 전기, 전자 부품 등 첨단산업의 핵심 분야가 대거 참여한다.

2024년도 전시는 약 1,600개 참가사, 22만명의 방문객, 140,000 sqm 전시장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드루파 전시회가 국내 업체에 또 한 번 성공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가교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대표부 : 라인메세(주) (02-798-4343, info@messe.co.kr)

한국후지필름BI, 레보리아 프레스 3종 출시

기업, 디자인, 상업인쇄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한국후지필름BI(대표 하토가이 준)가 국내외 상업 인쇄업계를 선도해온 '버산트 i 시리즈 (Versant 3100i/180i Press)'의 후속 제품인 새로운 '레보리아' 시리즈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들은 △레보리아 프레스 EC1100 △레보리아 프레스 SC180 △레보리아 프레스 SC170 등 총 3종으로, 최대 2,400dpi의 고해상도 인쇄 품질과 광범위한 용지 수용력을 갖춰 도면이나 그래픽 이미지를 자주 활용하는 기업은 물론 일반 복사 시장부터 디자인, 상업 인쇄 등 전문 인쇄업계에서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후지필름BI는 이번 신제품들로 후지필름BI의 디지털 인쇄기 브랜드 '레보리아'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시장 내 '레보리아' 브랜드의 입지 강화를 위해 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컬러 디지털 인쇄기 레보리아 프레스 EC1100



컬러 디지털 인쇄기 레보리아 프레스 SC180과 SC170

먼저, '레보리아 프레스 EC1100'은 '버산트 3100i 프레스'의 후속기로 A4 기준 100ppm 인쇄가 가능하며, '레보리아 프레스 SC180/SC170'은 '버산트 180i 프레스'의 후속기로 각각 분당 80ppm과 70ppm을 작업할 수 있다. 신제품 3종 모두 후지필름 BI만의 고유한 기술력으로 개발된 프린터 서버 '레보리아 플로우 린 서버(Reveria Flow RIP Server)'를 이용하여, 한층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인쇄 품질을 구현해주며 대용량 작업도 신속하고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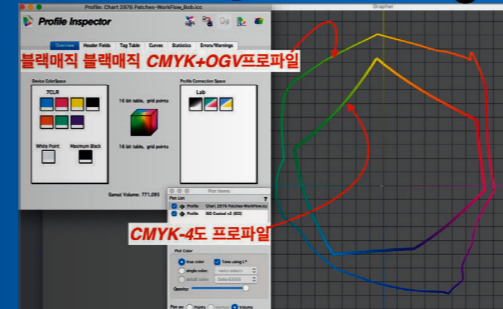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분석 기술로 이미지의 밝기나 선명도, 텍스처 등을 자동 조정해 최적의 출력 결과를 제공하며, 'CPMD(Color Profile Maker for Display)' 기능을 통해 모니터 화면에 출력물의 색상을 정확하게 재현해내 매번 테스트 인쇄를 진행할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다.

급지와 용지 수용력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되었다. 체인 공기 흡입 급지 유닛(Chained ASF), 대용량 공기 흡입 급지 유닛(ASF XL), 체인 대용량 공기 흡입 급지 유닛(Chained ASF XL) 등을 부착해 최대 10,300매까지 대용량 급지가 가능하며, 무게에 따라 52~400gsm의 경·중량지는 물론 1,200mm까지의 배너까지 광범위한 크기의 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후가공 옵션을 활용하면 출력부터 마감까지 전반적인 제작 공정을 더욱 손쉽게 마칠 수 있다.

블랙매직(Blackmagic) 인쇄교정 솔루션 국내 선봬

CMYK+OGV 기본 옵션으로 팬톤, 별색 재현 뛰어나

Serendipity Blackmagic



전 세계 CMS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호주 세렌디피티사의 블랙매직 인쇄교정 솔루션이 한국 총판인 칼라토크를 통해 국내에 선보인다. 까다로운 인쇄를 위해 설계된 교정 솔루션인 블랙매직은 CMYK+오렌지+그린+바이올렛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여 어느 교정립보다 색상 재현 범위가 넓어 팬톤 색상이나 별색을 재현할 수 있다. 또한, CTP 린에서 리핑된 1bit tiff 파일을 이용하므로 완벽한 교정으로 활용할 수 있고 ISO Coated (Fogra39)에 교정이 얼마나 정확인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인쇄색상을 기반으로 하는 기준 차트를 만들어 교정의 충실도를 체크할 수 있다.

부가기능으로 제공되는 CIP3 출력을 이용하여 교정지에 표시된 CIP3 그래프를 이용하여 인쇄현장에서 잉크 세팅을 할 수 있다. 한국총판 칼라토크의 박도영 대표는 "타사 교정립은 4도 프로파일만 사용하므로 오렌지, 그린, 바이올렛 링크를 모두 사용하는 엡손 플러터에서 팬톤 색상이나 별색을 완벽히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제품문의 : 칼라토크 070-7044-4739

4부회 간사장단 회의 개최

조합원 신규가입 및 K-PRINT 조합 부스 주도적으로 운영키로



우리 조합의 4부회(책자인쇄, 일반인쇄, 상업인쇄, 전산정보) 간사장단 회의가 지난 6월 26일(월) 조합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경영자 세미나에 대한 결과보고와 중구 인쇄인 생존권 수호 건의서 제출 및 답변 내용, 지난 6월 23일 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중구 인쇄인 발전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 결과, 조합원 신규 가입 홍보, K-PRINT 홍보 부스 운영 방안 등 조합이 추진했던 사업보고와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윤중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간사장님들이 솔선수범해주셔서 대토론회, 건의서 제출, 경영자 세미나 등이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4부회 간사회가 우리 1천여 조합원사를 대변해 봉사해 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원 증대를 위해 최근 가입비를 1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한만큼 가입 증대에도 4부회 간사회를 통한 증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8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K-PRINT 2023 전시회의 조합 부스 운영에 대해서도 4부회가 주축이 되어 유형별로 다양한 인쇄물을 전시하자는 의견이 나와 추후 운영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전시방안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김윤중 이사장, 중기중앙회 회장단회의 참석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장단과 공동으로 6월 28일(수)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E타워에서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ESG경영에 대한 트렌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조합 김윤중 이사장을 비롯한 업종별 이사장들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ESG경영에 참여할 업체를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사장들은 “ESG가 기업의 지향점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라며 “이런 컨설팅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이 처한 현실부터 인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이후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인 이사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뉴스에서 위반 사례가 보도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했으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과연 이러한 규제를 지키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데다가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자가 오너인데, 오히려 사후처리를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시행 전 현실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은 “ESG나 중대재해 예방 모두 우리 사회가 향후 가야 할 방향임을 잘 알고 있다”며 “펜데믹 등으로 겹겹이 고충을 겪은 중소기업에게 의무와 처벌이 아닌 배려와 지원 우선의 정책으로 다가가는 것이 제도 정착에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계천 을지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소셜미디어, 청원을 통해 서울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 요청



청계천 을지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금) 오후 7시 30분부터 세운상가 세운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조가람 인쇄공학 박사의 ‘서울 도심부 인쇄업체 집적지의 특징’을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 이어 신인아·김소미 디자이너가 ‘개발로 인해 디자이너들에게 오는 피해 사항’을 을지로 청계천 시민이용자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박은선 도시공학 박사가 청계천 을지로 지역 가치 살리기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박은선 박사는 “청계천-을지로는 서울의 보물로 우리 도시에는 잠잘 곳도 필요하지만 일하고, 생산하고, 상상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줄 현재의 공간도 필요하다”며 “이 공간은 2만명이 넘는 기술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삶터이자, 기술개발자, 대학 연구실, 의뢰기기 개발자, 디자이너들과 예술가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실험하는 커다란 생산의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도 불가능한 청계천-을지로 그리고 세운상가 일대를 서울시의 현재 전면철거 후 200미터가 넘는 초고층 빌딩숲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재개발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이 공간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긴급하게 토론회를 마련했

다”고 했다.

이에 “첫번째 긴급토론회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 가장 큰 규모인 세운6구역의 인쇄 편으로 해당 구역에는 전문성을 갖춘 인쇄장인들이 도심에 집적해 있어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와 단기간 주문까지 소화할 수 있는 인쇄 인프라가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금도 수많은 사용자가 찾는 공간”이라며 “오늘 청계천-을지로 일대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활동가와 사용자인 디자이너, 해당지역 인쇄장인과 관련 연구자와 함께 현재 닦친 위기를 조명하고, 현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이 도심인쇄업에 미칠 영향, 지역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으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각자가 개인 소셜미디어나 청원 등을 통해 서울시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공동주최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리스투더시티,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은 이미 지난 6월 13일 1차 시민 연서명을 통해 2,900여개의 서명과 메시지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연서명 제출에 이어 이번에 청계천-을지로 일대 소상공인과 장인, 사용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기부행렬 잇따라 박장선 대표, 김인호 대표 각각 1억원, 1천만원 쾌척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6월 30일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장 박장선)'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구청장실에서 열린 전달식에서는 (주)투데이아트(대표 박장선)가 기부금 1억 원을, (주)동양상사지기인쇄(대표 김인호)가 기부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중구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은 학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소외계층에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출범했다. 지역인재 양성에 뜻을 품은 독지가들의 후원에 힘입어 지역 발전을 선도 할 우수 인재들에게 각종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취임한 박장선 재단 이사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껏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중구의 인재 육성을 위해 이사장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인호 이사도 “새로 취임한 이사장님과 함께 적극적인 장학 사업을 펼쳐,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단은 2023년 상반기 장학생 80명을 선발하여 총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난 6월 9일 선발공고를 내고 '꿈드림(저소득)·성적우수·특기 분야' 장학생에 대한 신청 및 접수를 완료했다.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가운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재단 이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중구의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꿈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엡손, 밀알복지재단과 MOU 체결 자원 재활용 굿윌스토어 협력으로 ESG 경영 실천

한국엡손(이하, 엡손)이 지난 6월 28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밀알복지재단)과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굿윌스토어' 협력 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엡손 후지이 시게오 대표, 밀알복지재단 한상욱 본부장을 비롯한 양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엡손은 협약을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친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프로젝트 등 엡손 제품도 기증했다. 굿윌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에서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의류, 도서, 전자 기기 등을 기부하면 물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급여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단순한 자선을 넘어 물품 기부부터 판매와 구입하는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모두가 자원의 재활용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협약을 통해 엡손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엡손은 고유 기술과 제품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



에 참여해 오고 있는데, 이번 밀알복지재단과의 협약으로 장애인에게 자선을 넘어 일자리의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태게 됐다. 또한, 자원 재순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참여, 기부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가정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엡손 후지이 시게오 대표는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환경보호와 더불어 장애인 자립 지원이라는 뜻깊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엡손은 앞으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 지속가능한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상동화 G7 마스터 인증 획득 엡손 디지털 라벨인쇄기의 정확한 컬러 구현 확인



라벨인쇄와 연포장 및 디지털 인쇄 등 종합 패키징 인쇄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동화(주)(대표이사 김원기)가 G7 마스터 인증을 획득했다. G7 인증은 ISO 국제표준에 의거해 개발된 컬러 및 프로세스 컨트롤 방식으로, 높은 정확도로 컬러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상동화의 이번 G7 인증은 지난해 한국엡손과 함께 국내시장에서 디지털 라벨인쇄기(슈어프레스 L-6534VW)를 소개한 이후 인쇄품질과 장비 안정성에서 큰 화제를 모으게 됨에 따라 국내 고객들에게 국제 규격에 적합한 컬러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알리고자 진행한 것으로 G7 마스터 인증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상위 단계인 컬러스페이스 인증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번 인증 획득 과정을 담당한 상동화의 박선수 부장은 “이번 인증과정을 통해서 엡손 디지털 라벨인쇄기가 UV 잉크젯 인쇄방식의 특성을 잘 살려 더욱 생동감 있는 색상 재현을 할 수 있고, 디자이너가 원하는 컬러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에 상동화는 G7 마스터 인증 획득을 기념하여 오는 8월 23일부터 열리는 K-PRINT 2023 전시회의 한국엡손 부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 상동화(주) 02-2279-5621

조합원사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쇄저널은 조합원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업체탐방'과 '홍보기사'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업체 홍보를 원하시는 회원사는 서울인쇄조합 기획홍보팀으로 연락주세요. Tel : 02-333-8631(내선 239) / E-mail : cmyk1813@naver.com

세운지구 재개발 인쇄인의 터전을 보장하라!

중구 6천여 인쇄인과
5만여 종사자의 삶을 빼앗는
대책없는 세운지구 재개발에
인쇄인은 분노한다

6백년 역사 주자소터 중구
인쇄산업 최대직접지 중구

인쇄인 생존권 보장!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중구인쇄인생존권수호대책위원회

조합 '커뮤니티 공간' 무료 이용 안내

우리 조합에서는 조합원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합 사무실 내에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나, 각종 소모임 및 회의 장소가 필요하신 조합원께서는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 제1·2 회의실 이용 안내(중구 마른내로 140, 3층)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신청
- 이용시간 : 월~금요일(토, 공휴일 제외) 10:00~12:00, 13:00~18:00
- 문의 : 총무관리팀 02-333-8631(내선 237, 236)

※ 각 회의실 사무용 책상 1개 구비, 탕비실 이용 가능(커피, 식수) 요청 시 빔프로젝트(이동식) 및 노트북 제공해 드립니다.



제1회의실



제2회의실

조합원사 대상 어도비 프로모션

2023년 8월 25일까지 조합 홈페이지 통해 구입

본 조합은 어도비사 제품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공동구매 프로모션을 오는 8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조합원께서는 다음과 같이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Adobe 프로모션 상품 (V.A.T 별도)

제품명	소비자가(원)	프로모션가(원)
Adobe CCT 모든앱(Complete)	1,104,000	1,000,000
Adobe CCT 단일앱(Single)	468,000	440,000
Acrobat DC	별도 문의	별도 문의

- ①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spic.or.kr)
- ② 「Adobe Creative Cloud 프로모션」 팝업창 클릭
- ③ 정보입력 및 필요한 제품을 선택 구매 / 온라인 결제

조합원사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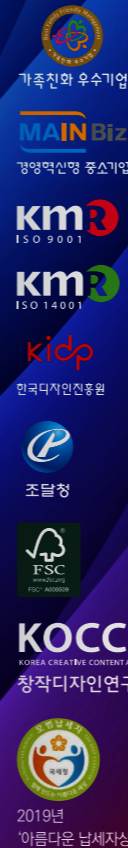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경 사항
(주)동원피엔지	조석현	조천수	대표
(주)경인디앤피	중구 퇴계로 235, A동 418호 (충무로4가, 남산센트럴자이)	중구 퇴계로49길 2 1, 2층 (충무로5가, 삼인빌딩)	주소

결혼

- 한아름인쇄 김천수 대표의 장남 재창군이 6월 17일 문수컨벤션웨딩홀(울산)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주)교서원 유진영 대표이사가 지난 7월 1일 더챗플랫폼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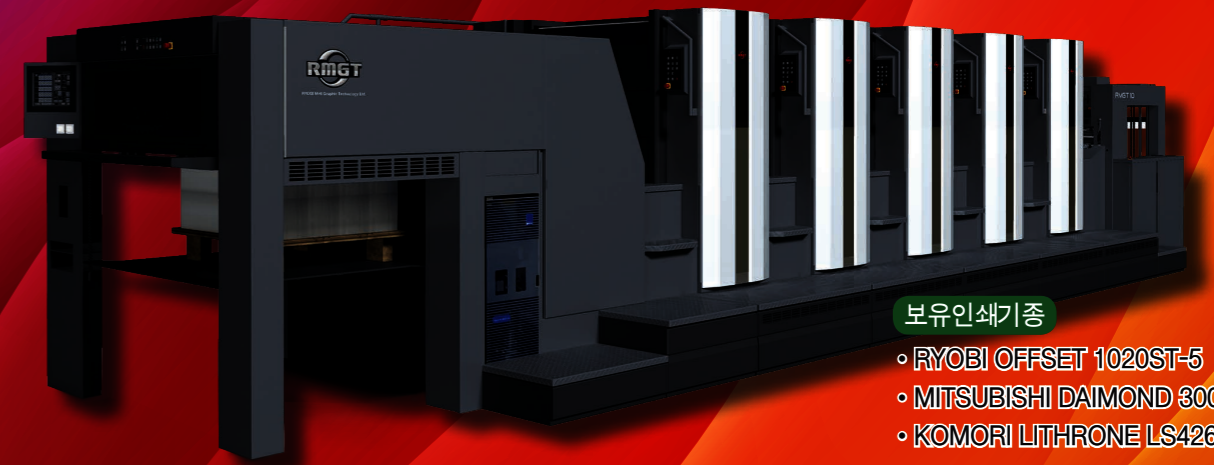
부고

- 엠에스 허명수 대표 부친께서 6월 6일 별세하셨습니다.
- 나인애드 이봉수 대표의 모친께서 6월 21일 별세하셨습니다.
- 삼성인쇄지공업사 이종근 대표(향년 91세)께서 7월 4일 별세하셨습니다.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보유인쇄기종

- RYOBI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일산 장항동 공장



일산 장항동 공장



충무로 공장

KYUNGSUNG 경성문화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SANG DONG HWA

당신의 고민!!
40년 노하우의 **상동화**가
해결합니다.

라벨, 플렉소, 제판, 패키징, CMS
고민이십니까?
진정한 전문가를 찾고 계십니까?
40년의 노하우로
믿을 수 있는 전문회사를 선택하십시오!



t. 02) 2279-5621 www.sangdonghwa.com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쌍림빌딩 1205호) | Fax: (02) 2277-7015 | www.sangdonghwa.co.kr | sdh5621@sdh5621.com

